

## 시민 구술 아카이빙의 의미와 확장성 고찰\*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and Scalability of Citizens' Oral History Archiving:  
Focusing 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Digital Life History  
Archiving Project' in 2021

손동유(Sohn, DongYou)\*\*

1. 머리말
2.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
  - 1) 사업의 배경과 주요내용
  - 2) 생활사 기록가 구성과 활동
  - 3) 교육과 실습
  - 4) 산출물
3. 시민 구술채록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 1)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2) 사업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 3) 건의사항으로 보는 시사점
  - 4) 운영진 입장의 정성 평가
  - 5) 한계와 과제
4. 시민구술의 활용과 확장
5. 결론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ani.dysohn@gmail.com).

■ 투고일: 2024년 03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4월 01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4월 21일.

■ 기록학연구 80, 129-165,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80.129>

## 〈초록〉

본 연구는 시민 구술채록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고자 한 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구술사연구가 서서히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구자에 의한 시민인터뷰, 연구자에 의한 엘리트 인터뷰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시민에 의한 시민인터뷰는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생활사 아카이빙”사업은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아카이빙과 구술채록에 대한 교육을 거친 시민들이 직접 인터뷰를 수행하고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구술기록 생산, 시민의 아카이빙 역량 확보, 지역 문화자원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며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 구술기록의 활발한 생산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술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과 구술기록 플랫폼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시민, 구술,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공동체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activation of citizen oral history. As is well known, research on oral history gradually began in earnest in Korea from the 1980s. Until now, citizen interviews by researchers and elite interviews by researchers have steadily increased in quantity. However, citizen interviews by citizens are insignificant.

The “Digital Life-history Archiving” project, which has bee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2021, is a new and meaningful attempt. Citizens are educated on archiving and oral history to conduct interviews and produce archives. It is producing high-quality oral archives, securing citizens' archiving capabilities, and building local cultural resourc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in 2021, I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and looked at the implications. I expect it to help reduce trial and error in the future. I also proposed a plan to actively produce and utilize citizen oral archives. To this end, specific cooperation between oral-history institutions and oral archives platforms were also proposed.

**Keywords:** citizen, oral histor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igital life-history archiving, community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1990년대 즈음부터 구술채록이 도입되어 학문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김귀옥, 2014; 윤택립, 2019).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던 권위주의 정권시기 자신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구술기록을 남기기 위한 과정 즉, 인터뷰를 준비하고, 인터뷰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고, 녹취문 등 결과물을 남기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면서 개개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일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디지털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발

전성과를 구술채록 작업에 활용하면서 기록의 안정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노동력에 의존할 때보다 작업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의 부재를 보완하거나, 기존 사실을 풍부한 관점에서 폭넓게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을 통해 구술채록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도 구술채록 활성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법원 법원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등의 기록관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사료를 다루는 기관은 물론이고, 외교부, 통일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 여성사박물관, 전쟁기념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구술채록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꾸준히 구술채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관 또는 지방사편찬위원회 등에서도 구술채록을 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과 구술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인터뷰를 할 때 대화의 범위를 생애사 전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주제로 한정하여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기록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새롭게 알고자 하는 내용을 구술채록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내용적 필요성에 따라 구술 대상을 섭외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대체로 중요사안에 관여된 전문가, 명망가, 기관 및 단체의 고위직 인사 등 소위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구술인터뷰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근현대시기의 식민지, 전쟁, 분단, 독재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적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구술채록의 궁극적인 지향이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 또

는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계급, 계층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으로 확보하여 역사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대사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재의 과도기적 모습 즉, 엘리트 구술이 불가피한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공공기록물 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일반인 구술채록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엘리트 구술의 비중이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구술 아카이빙 측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잠재구술자 현황, 접촉 현황, 사전질문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술채록 및 구술자료 활용동의서, 면담자 및 구술자의 신상정보, 음성·이미지·영상 파일, 면담일지, 녹취문, 상세목록 등 구술인터뷰의 맥락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 결과물을 서비스하는 방법 또한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구술기록을 생산만 하고 서비스는 하지 않는 경우, 구술내용을 책자로 엮어 문자 형태로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기록과 녹취문, 상세목록 등 제반 기록을 함께 서비스하는 경우, 요약 또는 핵심 부분만 편집한 영상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만 공개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이러한 국내 구술아카이빙 환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도부터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기록화하려는 의도에서 준비되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구술사업 중 일반 시민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구술채록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다. 면담자로 참여한 시민들은 교육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라는 이름으로 구술채록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구술사 수업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고, 시민이자 구술 및 아카이빙의 초심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본문에서 상세히 서술할 생활사 기록가들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술채록 방법, 결과물 취합, 활용 등의 다양한 이슈는 향후 이루어질 다른 구술 사업에서 참고할 내용이 다수 있다.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에서 발생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활동이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람’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대로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구술채록을 통한 기록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생산한 성과는 기록물로도 남지만 참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량으로 쌓여 이 모두가 중요한 문화 자산이 될 것이다. 사람과 기록, 즉 기록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축적된 아카이빙 역량과 그 사람들이 기록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측면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구술결과는 면담자와 구술자의 협업으로 만들어진다. 주민들끼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화 한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방식에 따른 내용적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살아가는 보통사람의 이야기가 국가 차원에서 공식기록으로 관리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지역, 세대, 계층 간의 소통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의 장은 상호이해와 상호책임성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시민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기능을 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구술기록의 생산과정에서 공론장 형성 기능이 발현되며, 이것이 바로 구술 기록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의 내용적 접근이 있었다(김택호, 2024, 443-469). 이러한 내용적 접근과 함께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의 과정을 소개하고 성과와 한계 및 시사점을 공유하는 형식적 접근을 통해 향후 다양한 현장에서 진행될 구술채록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 2.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

### 1) 사업의 배경과 주요내용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관한 “2021년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은 지역의 생활사, 사회·경제·문화적 사건 등을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이 구술채록 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당초 준비는 2020년 상반기에 시작하였으나 사업계획 확정, 예산 확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에 착수하였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민간기관이 보조사업자 자격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의 주민을 생활사 기록가로 선발하고, 생활사 기록가를 대상으로 구술채록과 아카이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구술채록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가치 있는 생활사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것이었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생활사 기록가 선발, 생활사 기록가 교육, 생활사 기록가 구술채록 활동 지원, 구술가이드라인 개발 및 구술기록 검수, 구술채록 기록물 관리 취합, 사업관리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활동 지역은 부산, 대전, 광주, 군포, 철원의 5개 지역이었다. 2020년에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확보된 예산상 지역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다섯 개의 지역은 문체부 담당자들과 보조사업자 간의 협의로 선정되었는데, 사업에 참여할 활동인력 유무, 중앙 정부 예산의 중복투입 여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안배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생활사 기록가 정원은 각 지역별로 부산 40명, 대전 40명, 광주 30명, 군포 20명, 철원 20명으로 총 150명이었다.

생활사 기록가는 공모절차를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적극성, 컴퓨터 활용능력, 사업이해도, 의사소통 능력 등이 선발기준이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했는데, 면접은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진행했다. 선발 시 중요한 특징은 5개의 활동 지역에 거주, 근무 및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sup>1)</sup>을 우선 선발하였다.

보조사업자인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에서는 일상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 확산,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구술기록 확보, 생활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등을 중요한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사업과정에서는 주민역량강화, 양질의 문화자원 확보, 합리적인 예산 배분과 집행을 최대한 유념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다.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생활사 기록가와 구술자로서 경험한 바가 체화되어 개개인의 역량으로 남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보았다. 보통사람들이 구술채록 한다고 해서 평소 가진 역량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실습을 통해 전에 갖지 못했던 역량을 갖추게 하고 이를 발휘하여 양질의 결과물을 내는 것도 중요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여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것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상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편 ‘생활사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적확하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기록학계의 기존 연구에서 일상 아카이브를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이다’(곽건홍, 2011, 9)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 내용이 사업의 취지와 일치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국가차원의 일상 아카이브의 실현을 위하여 구술채록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이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앙관리자를 총 15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사업총괄관리자 및 사업관리인력, 형식검수, 내용검수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지역별 참여인원의 규모에 따라 전담 관리자를 1~2인 배치하였다. 이들은 관리자 전체회의, 중앙관리자 회의 등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운

---

1) ‘청년’은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19세~34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고,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영하며 협의해 나갔고, 지역관리자들은 ‘관리’의 역할보다는 지역의 생활사 기록가들과 실시간 호흡하는 활동을 하였다.

교육은 4월-5월에 걸쳐 총 8강으로 진행했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했으며,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을 수행했다. 또한 문체부에서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권고하였으므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 교육 8강과는 별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5개 지역 각각 교육을 진행하였으므로, 총 40회의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을 수료한 생활사 기록가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역에서 구술채록 활동을 했고, 아카이빙 결과물을 생산하고 제출했다. 활동의 결과물을 모두 취합하고 정리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였고, 각 인터뷰의 요약문을 모아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 2) 생활사 기록가 구성과 활동

각 지역에서 구술채록 활동을 할 150명에 대한 명칭을 당초 운영진에서는 ‘기록활동가’로 하고자 하였으나, 문체부는 ‘활동가’라는 표현이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해서 논의를 통해 ‘생활사 기록가’로 정했다. 즉, 생활사 기록가는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의 공모에 응해 선발된 이후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고 지역에서 구술채록 활동을 하는 주민들을 일컫는 호칭이다. 이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유사한 다른 경우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호칭을 만들어도 무방할 것이다.<sup>2)</sup>

선발 시에는 약 1.8:1 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50명이 선발되었는데,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130여 명이 활동하였다. 포

---

2) 실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기록활동을 하는 경우, ‘마을기록가’, ‘마을아카이비스트’, ‘기록활동가’ ‘마을기록단’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 이유는 취업, 활동의 어려움, 이주 및 기타 개인적인 상황변화 등 이었다.

〈표 1〉 생활사 기록가 지원현황

구분	연령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지원자 수	63	47	63	68	25	57	209
비율	24%	18%	24%	25%	9%	21%	79%
구분	지역					비고	
	부산	광주	대전	군포	철원	전체 지원자 266명 중 경력단절 여성 63명. 청년 91명임	
지원자/정원	80/40	43/30	73/40	42/20	28/20		
비율	30%	16%	27%	16%	11%		

앞의 표는 선발과정에서 기록한 지원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21, 34쪽) 모집 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모집한다는 홍보 내용에 따라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부산과 군포가 활동정원의 2배수가 지원하여 타 지역에 비해 경쟁률이 높았다. 선발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이들 지역은 생활주변에서 아카이빙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보나 간접경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빙 활동이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생활사 기록가들은 2개월(4월~6월)간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5개월(6월~10월)간 최소 매월 1명의 구술자를 인터뷰하고 산출물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교육내용을 토대로 구술자 섭외, 질문지 작성, 음성 녹음(및 영상촬영), 녹취문 및 요약문 작성, 부대서식 작성 등의 과업을 수행했고, 이들 결과물을 취합해서 제출하면 검수 후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구술자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질문에 이어 주로 지역 삶이와 코로나-19의 일상을 묻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 범주 안에서 구술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화를 나눴다. 조사결과 생활사 기록가로 참여한 사람들은 구술인터뷰 경험이 없는 경우가 95% 이상이었는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활동초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출물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역량이 뛰어난 생활사 기록가들은 관리자와 협의하여 한 달에 1건 이상의 목표치를 상회하게 인터뷰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출물 완료 건수 기준으로 볼 때 생활사 기록가 1인당 목표 건수인 5건을 진행한 경우는 35%이며, 6건 이상 추가 구술을 진행한 경우도 44%에 달했다. 생활사 기록가 중 79%가 목표 5건 이상의 구술을 진행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5개 지역에서 713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구술시간은 총 1,244시간인데, 작성된 녹취문의 분량은 A4용지 기준 26,875페이지에 달한다.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할 때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타 기관 구술 사업의 예산대비 결과물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sup>3)</sup>,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관리자, 구술자, 생활사 기록가들의 역량이 축적된 측면을 고려하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생활사 기록가의 면담에 응한 구술자는 남성 302명, 여성 411명이 참여하였고,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5%(175명)로 가장 많고, 20대 18%(125명), 40대가 17%(119명), 30대 14%(97명), 60대 15%(106명), 70대 8%(59명) 순이다. 이밖에 80대 28명, 10대 3명, 90대 1명의 구술자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 중 최고령 구술자는 1928년생(당시 93세)이고 최연

---

3) 2024년 기준 국가기관의 구술사업 산출물 규모를 보면, 국회기록보존소의 경우 5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술자 4명 이상, 총 28시간 이상의 구술결과물을 생산하는 계획이고,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술자 15명 내외, 총 80시간 이상의 구술결과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경우 8천만원의 예산으로 구술자 10명 내외, 총 40시간 이상 구술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

소 구술자는 2008년생(당시 13세)이었다.

구술자는 각 지역에서 거주, 근무, 사회활동 등을 하는 주민으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생활사 기록가들이 직접 섭외하고 선정하도록 했는데, 평소 지역에서 활동이 풍부한 사람, 오래 거주한 사람 등을 우선순위로 섭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후술할 구술자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생활사 기록가들은 지인을 통해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발언에 주저함이 없는 주민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생활사 기록가들의 연배와 비슷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교육과 실습

아카이빙 활동, 구술채록 활동 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사 기록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교육목표 설정이 필요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에 귀 기울이면서 구술채록과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카이빙에 대한 이해와 일상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아카이빙 기본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컴퓨터 활용능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2개월 간 8회 강의라는 길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이 모든 능력을 갖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선발과정에서 지역 이해, 소통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게 되었고,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아카이빙과 구술채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방법을 습득하는 데 주력하였다. 즉, 생활사 기록가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철학, 아카이빙 및 구술채록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역량, 소

통능력을 설정했는데, 제한적 상황인 관계로 아카이빙 및 구술채록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의 표와 같다(((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21, 48쪽).

〈표 2〉 2021년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교육 내용

구분	강좌 내용	주요 내용	시간	비고
1강	오리엔테이션	대면 강의	1.5	
2강	지역문화와 아카이브		1.5	
3강	구술채록의 의미와 방법 1 (사진 및 영상촬영)	비대면 강의 /실습	1.5	*질문지 만들기
4강	구술채록 의미와 방법 2 (질문지 및 인터뷰 글쓰기)		1.5	
실습 기간	교육생들이 1인에 대한 구술인터뷰를 수행하고 녹취문을 작성함	실습	2주	*개별적으로 수행 *과제 제출
5강	지역 인터뷰 현장 사례	비대면 강의 /실습	1.5	*개별질문 및 애로사항
6강	구술기록 만들기 (산출물 작성 방법)		1.5	
7강	전체 과정 요약	대면 강의	1	*활동 시 사용할 사업안내 유인물 배포
8강	워크숍	대면 강의 /토론	1	
특강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1	*전문강사

교육의 흐름은 아카이빙과 구술에 대한 개념 이해, 인터뷰 방법 및 산출물 작성 방법, 실습 및 애로사항 대응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개념 이해 단계에서는 아카이브의 정의, 우리나라 전근대에서 현대까지 기록관리 제도의 변천, 공동체와 지역의 일상기록의 의미, 구술채록의 필요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카이빙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다. 인터뷰 및 산출물 작성 단계에서는 구술 인터뷰 절차, 인터뷰하는 방법, 필수 생산기록 및 서식 작성 방법, 요약문 작성을 위한 글쓰기 학습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교육 중간에 실습을 통해 생활사 기록가들이 직접 구술자를 섭외하고, 인터뷰하며, 부대기록을 모두 생산해 보는 과정을 연마하게 하였고, 후반부에는 교육과 실습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였다. 질의 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보충 및 심화교육이 필요한 경우, 토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었는데 생활사 기록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따라서 주어진 8회 강의에 더해 보완차원의 추가교육이 이루어졌다.

#### 4) 산출물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록물로서 아카이브는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으로 구성된다. 내용이란 기록에 담긴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등의 정보를 말한다. 즉 기록에 담긴 메시지이다. 구조란 기록의 내용을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형태적 양식이다. 문서, 사진, 책, 상자, 영상파일 같은 외형을 말한다. 맥락은 기록이 만들어지고 존재해 온 환경과 정황을 포함하여 해당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정보 등을 뜻한다. 생활사 기록가들의 결과물 또한 내용, 구조, 맥락을 충실하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주민아카이빙 활동에서는 전시, 책자발간 등의 성과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이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면 이 중에서 선별하여 전시, 책자발간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록물의 생산배경, 의미와 메시지 등은 남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활사 기록가들이 구술채록에 임하는 배경, 과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 일환으로 국회기록보존소, 대법원, 대통령기록관 등의 구술채록 매뉴얼과 서식을 참고하였고,<sup>4)</sup>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sup>5)</sup>에서 활용되었던 매뉴얼과 서식,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 과정인

2021년 9월 한국구술사학회에서 배포한 구술채록 매뉴얼<sup>6)</sup>의 일부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공식적인 자문을 받아 구술 및 구술자료 활용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도 하였다.

2021년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에서 생활사 기록가들이 생산한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질문지, 구술 및 구술자료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비공개 내역서, 면담일지, 녹취문, 요약문, 사진기록, 음성기록, 영상기록 등이며 최종 결과물은 구술자별로 정리하고, 지역별로 취합하여 마무리하였다. 잠재구술자 정보, 접촉정보 등도 이어지는 유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산출물이라고 보았으나, 생활사 기록가들로서는 녹취문 작성과 함께 구술자를 섭외하는 과정을 가장 어려워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실현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장시간의 인터뷰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구술시간이 대체로 1.5시간~2시간가량으로 장시간이 아니었고, 녹취문과는 별도로 구술자료집 제작용 요

- 
- 4) 후술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구술사학회는 관련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론된 기관의 경우 매뉴얼을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해당기관이 발주한 구술 사업의 수행팀에게만 제공하는 관계로 사업수행 시 습득했던 내용을 참고하였다.
  - 5)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으로 2009년 4월부터 10년 동안 “현대한국구술사연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서는 2010년에 구술 자료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9년 9월 2일자로 전면개정 한 「구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연구결과물 유형, 자료화, 이관 표준화 지침」을 공개하였다.
  - 6) 한국구술사학회에서는 2021년 9월 3일자로 윤택림이 집필하고 학회가 검수한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채록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이 매뉴얼은 일반 시민, 개인 연구자, 민간단체 및 기관에서 구술채록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고, 구술사는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고, 구술자료는 공공문서라고 규정하며 소중한 역사적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약문을 작성하기로 해서 요약문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구술자와 면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구술서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목록화하여 확보하였다.

### 3. 시민 구술채록사업의 평가와 시사점

2021년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은 명실상부하게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반시민이 일반시민을 인터뷰하는 첫 사업이었다. 따라서 첫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남겨 이후의 사업에서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참여자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였다. 당시 모니터링(서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 1)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 조사는 교육프로그램을 마친 2021년 5월 말에 진행되었으므로 생활사 기록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중 132명이 조사에 응했다.

사업참여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역문화 활동 참여”가 전체 69%로 가장 많으며, 다음 “전문지식 습득(17%)”, “경제적인 목적(11%)” 순으로

---

7) 본 사업을 완료하면서 보조사업자인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에서는 「2021 디지털 생활사아카이빙 사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문과 답변의 상세 내용은 본 사업의 완료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문체부에서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 연구에는 사업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주요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응답하였다. 대체로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만족도에서는 “교육 내용 구성(92%)”, “수업 자료 유용(92%)”, “역량 강화에 도움(93%)”에서 90% 이상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도 높은 출석률, 구체적인 질문과 반응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생활사 기록가들이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에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수업기간 및 시간에 대해서는 85%의 만족도, 대면/비대면 방식 안배에 대해서는 86%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내용에 대하여 소수이긴 하나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의 및 강사진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 철저(92%)”, “눈높이 강의(92%)”, “질문에 대해 성실 응대(94%)”, “적절한 강의 기법(88%)” 등 모든 문항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20대~30대 응답자 중 강의기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이 다소 높았다는 점은 대체로 기성세대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췄던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분석된다.

종합평가는 “향후 같은 사업 참여 의향(84%)”, “타인 추천 의향(85%)”, “전반적인 만족도(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는데, 실제로 2022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서술형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기록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구술자 사례비, 장비 지원, 공간 지원)”, “향후 기록물 활용 방안 미확정(2차 저작권 포함)”, “가이드라인 부정확” “사업 확대 및 지속 희망”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지원을 희망하는 내용 중 구술자 사례비의 경우 이 사업이 문체부 담당자들은 당초 지급을 반대하였으나, 운영진에서 타 기관 사례를 근거로 설득하여 소액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생활사 기록가들은 사례비가 지나치게 소액(3만원)인 관계로 구술자에게 안내를 할 때 입장이 난처하다는 점을 여러 번 호소하였고, 일부 생활사 기록가들은 개인비용으

로 답례를 준비하기도 하는 등 누적된 불만 지점이었다.

향후 기록물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은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 첫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진이 사업 착수단계부터 활용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사업종료 시점까지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단순히 활용방안이 모호하다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사 기록가들이 구술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구술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구술자 섭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운영진에서 겹쳐히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업과정에서 생활사 기록가들이 질문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청한 경우는 돌발적인 현장상황, 구술자의 특성, 생활사 기록가의 역량,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매우 많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운영진으로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해법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여 안정감 있는 안내를 하지 못하고 사안별로 대응한 몇 번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운영진에서는 첫해의 시행착오를 결과보고서에서 기록하여 이후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과 요청사항 및 대처 사례를 모두 모아 사업 종료 시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 2) 사업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 조사는 생활사 기록가들의 활동이 종료된 후 11월에 진행되었으며, 이때까지 활동한 133명의 생활사 기록가 중 1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구술 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 질문 준비(67%), 구술 장소 마련(66%), 장비준비(69%) 등 아주 높지 않지만 대체로 용이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구술자 섭외는 51%만이 수월했다고 응답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통이다’는 의견이 각 문항

20%~30%를 차지해서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10%를 넘지는 않았다. 한편, 서술식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에서는 “사례비 적음”, “향후 활용 방안 미 제시” 등이 제시되었다.

구술 과정에 대한 평가는 동의서 작성(긍정 평가를 91%)은 대부분 문제 없이 진행했고, 인터뷰 진행(긍정 평가를 83%), 구술 시 촬영 및 녹음(긍정 평가를 76%) 또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구술 동의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섭외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명 과정에서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촬영 및 녹음에 대해서 고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율이 44%로 나타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 연령층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산출물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산출물을 작성하는 시한(75%), 산출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86%), 산출물 제출방식(76%)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녹취문·요약문·면담일지 등 문서기록 작성은 51%만이 수월했다고 응답하여 생활사 기록가로서는 매우 어려운 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녹취문 작성에 대한 애로사항 접수와 문의가 가장 많았고, 운영진의 입장에서도 한 명 한 명 응대하면서 상세하게 안내했으나 여전히 생활사 기록가들로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였다.

기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지역 관리자와의 소통은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업관리’의 목적보다는 생활사 기록가들과의 협업차원에서 임했던 것이 유효했다고 분석된다. 생활사 기록가들에 대한 활동비와 구술자 사례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각각 50%와 75%를 보여 대체로 불만족스러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술자 사례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3) 건의사항으로 보는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사 기록가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과 개선사항

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지는 의견들이 있다. 설문조사의 통계 내용에서 분석되는 부분을 '대변하듯' 서술형으로 의견 개진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실제로 서술형 답변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표현만 다소 다르게 여러 명이 개진하여 '대변하듯'이라고 한 것이다. 이 중 하나인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30대 남성 생활사 기록가의 건의사항이다.

“생활사 기록이라는 한 작은 역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너무 만족하지만, 차후 사업을 위해 기록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보완돼야 한다고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기술하겠습니다.

첫째, 면담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면담자 대부분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구술 채록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본격적인 구술 전 몇 번의 교육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바로 채록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한 자신감은 면담자가 구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비교적 긴 사업 기간 동안 면담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구술 채록의 경험을 통해 점 점 구술 채록에 대한 패턴이 정형화되고, 요령이 늘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면 더 질 높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는 방식으로 사전 교육에서 실질적인 인터뷰와 기록물 작성 경험을 몇 번 더 가지도록 하는 방법과 면담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양화하고 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교육 초반에 카메라 활용 등 장비 부분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가능하게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구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사업 운영상 제한이 있는 부분이지만 구술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는 더 다양한 구술 대상의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면담자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 구술을 채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인이 아닌 대상에게 구술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득의 수단으로 가장 실질적인 것은 구술자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사례금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할인권이나 체험권 등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록물에 대한 향후 활용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면담자가 구술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 어디에 쓰이는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막연하게 문체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서, 앞으로 활용될 거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생활사 기록한다는 게 정말 흥미롭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략)

교육에 대한 제안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1년 단위 사업으로서 대체로 1월~3월간 사업준비와 운영진 선정기간을 거치고, 4월에 착수하여 10월 또는 11월에 생활사 기록가들의 활동을 정리해야 1~2개월 산출물을 정리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생활사 기록가들의 활동을 5~6개월로 잡으면 교육기간은 자연스럽게 2개월 이상 확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사업의 특성상 교육을 무한정 많이 그리고 자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1년차 사업을 기준으로 보자면 교육의 기간과 횟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실습과 실습 결과물 공유는 보다 넉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면교육이 일상화 된 지금 지역별로 현지에서 대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자원으로서 구술기록을 가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사 기록가들이 지역문화자원의 생산자이자 수호자로서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교육프로그램의 질

적, 양적 제고는 꾸준히 시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외의 시간에도 같은 지역의 생활사 기록가간의 소통, 타 지역 생활사 기록가와의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문체부와 운영진도 공감하는 사안으로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관계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종료 시까지 완주한 생활사 기록가들의 90%는 활동에 대하여 보람과 만족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87%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싶고, 79%는 타인에게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4) 운영진 입장의 정성 평가

위에서 제시한 참여자들의 의견과 통계에 의한 평가와는 다른 각도에서 운영진의 입장에서 보는 평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차원의 일반인 구술기록 생산의 가능성

그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기관에서 구술채록을 해온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 연구자가 사회적 명망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교육과 실습을 이수한 후 ‘생활사 기록가’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보통의 삶을 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구술기록을 국가차원에서 이전에 비해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문체부에서 주관하며 국가차원의 기록으로 확보하였으므로, 향후 구술기록이 국민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때 그 효용성과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② 주민 문화역량 제고

생활사 기록가 선발과정에서 확인한 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아카이빙 활동 경험이 없었으나, 본 사업을 통하여 구술인터뷰 및 기록화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구술인터뷰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적 구술자를 선정하고 목록화 한 뒤,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여 인터뷰 동의를 얻어 구술자를 선정하였다.

구술자에 적합한 질문을 준비하여 구술자와 생활사 기록가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교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사진 파일, 음성 파일 및 영상 파일을 생산하고, 인터뷰 후 생산된 파일을 확인하며 녹취문을 만들고 이를 요약하여 요약문으로 정리하였다. 그 외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취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활사 기록가 스스로 해냄으로써 기록물 차원에서는 내용, 구조, 맥락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으며 기록가 입장에서는 추후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생활사 기록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스스로 아카이빙 역량을 갖추게 된 점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며(90%) 향후 유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높게(87%) 나타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양질의 문화자원 확보

본 사업 구술자들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이고 그중 70대 이상이 12%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특성상 80대 이상은 일제 강점기 즉, 식민지 상태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 정서를 갖고 있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70대는 분단과 6.25 전쟁의 극한상황과 세계 최빈국의 상황을 경험한 세대이다. 또한, 50대~60대는 학창시절에 독재를 경험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나가는 시기를 살아왔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기억과

경험을 기록물로 생산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자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기록은 활용할 때 더욱 가치를 발휘한다. 온라인 서비스, 책자 발간 등의 1차원적 공유 외에도 구술기록을 활용한 2차, 3차 콘텐츠 제작, 수업, 교육, 상설전시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 방안 마련 등으로 세대 간 지역 간의 소통을 시도할 때 본 사업의 결과물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 ④ 지역문화 활성화

2021년에는 주로 ‘지역에서의 삶’, ‘코로나-19시대’의 일상을 소재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 중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 지역 정체성의 고민, 지리환경 요소 등 다양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조선업, 해운대, 온천, 신발공장, 신공항, 핵발전소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고, 철원의 경우 오대쌀, 접경지역, 대북방송, 군인, 수복지구, 6.25전쟁, 두루미, 한탄강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 간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생각하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일구어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내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역 간 소통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5) 한계와 과제

처음으로 기획된 사업으로서 갖는 한계와 운영상 겪었던 시행착오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주관기관과 보조사업자 간의 소통 문제

주관기관(문체부)과 보조사업자(운영진) 간의 기본적인 소통은 1회/주 서면보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논의 및 협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통화, 이메일, 대면회의 등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와 원활하게 협의하기보다는 결론을 통보하는 방식 및 가/불가의 입장만 밝히는 방식으로 소통에 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예산집행, 행사참석, 일정수립 등에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구술자사례비, 생활사 기록가 신분증명, 구술결과물 활용방안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고 생활사 기록가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생활사 기록가들과 지역관리자 간의 소통은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나 한 지역에서 생활사 기록가 1인이 본인의 산출물 평가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하고 활동을 중단한 경우가 있었다. 지역관리자뿐만 아니라 중앙관리자들이 협력하여 해당 생활사 기록가와 면담하는 등 서로의 생각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별한 경우여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현장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원만한 소통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역관리자들이 생활사 기록가들과 SNS소통, 1:1소통을 적극적으로 취하며 거의 실시간 소통을 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관리자들이 격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시간을 정하거나 논의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만의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② 디지털 환경의 원활한 활용 필요

본 사업은 5개 지역 생활사 기록가들이 생산한 대용량의 기록물을 취합

해야 하고, 취합된 기록에 대하여 형식검수, 내용검수를 거쳐 피드백 하는 소통과정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대용량 산출물을 최소시간에 업로드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산자와 관리자가 동시에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업무상 필요하므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트라넷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주관기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초기에는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사용하라는 일방적 제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금세 활용에 곤란함이 드러났고, 모 외국기업의 드라이브를 유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되고 필요한 기능은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 착수 이전에 디지털 환경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③ 면밀한 사업준비 필요

구술채록은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과물의 질이 좌우되며 구술자의 역할은 물론이고 면담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구술자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뷰에 참여했고, 자신의 기억과 경험이 공공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다중에게 공개할 것을 수락해 준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술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사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초 주관기관은 구술사례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의과정에서 타 기관 구술채록의 사례를 들어 설득하여 사례비를 지급하기로는 했지만, 사례금의 규모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보조사업자 간의 견해차이가 컸으나, 주관기관의 입장대로 시행되었다.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생활사 기록가들이 구술자 사례가 지나치게 약소하여 현장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고, 일부 생활사 기록가들은 자비로 구술자에게 사례를 하기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사 기록가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구술자 섭외와 녹취문 작성이었는데, 구술사례비는 구술자 섭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준비 단계부터 구술기록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관기관에서 계획을 마련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술자들로부터 구술기록 활용계획을 질문 받았으나, 생활사 기록가, 지역관리자, 중앙관리자 모두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없어서 활동 현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점은 구술자 섭외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이라는 명칭에 부합하게 디지털 환경의 원활한 활용, 생활사의 주인공에 대한 예의, 생산-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명실상부한 아카이빙 체계확보 등의 측면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4. 시민구술의 활용과 확장

2022년부터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온라인서비스 하고 있다.<sup>8)</sup> 이 서비스에서는 2022년의 결과물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충청남도 태안군 등 지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각 지역별 카테고리의 제목은 ‘대덕과 사람, 그 자취의 기록’, ‘김포 원도심 주민의 생활상 변화 기록’, ‘서구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 서구 네 텃’, ‘개발과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민 생활 변화’, ‘동소문 밖 도시 개발과 주민들이 이야기’ 등이다. 제목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기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구술개요(구술자 및 면담자 이름, 면담 횟수

---

8) 서비스 사이트 주소는 <https://ncms.nculture.org/story-of-our-hometown/introduction/oral>이다. (2024. 3. 30. 검색)

와 시간, 면담일시와 장소, 구술자 이력, 주요 구술내용, 키워드 등)와 구술 인터뷰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영상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분할된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녹취문이나 상세목록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2021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진일보한 모습으로 향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2021년 사업에서 생산한 구술채록 내용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사례집 1, 21-29) 2021년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코로나 시대의 일상변화, 둘째는 각 지역별 관심사와 일상생활이었다. 구술 영상과 녹취문을 통해 전체 인터뷰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문체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운영진에서는 본 사업의 사례집을 제작하면서 위 내용을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지역의 삶을 말하다’, ‘일상을 말하다’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와 관련한 새로운 단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코로나, 일, 생활의 범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팬데믹, 코로나 블루/레드, 우울, 워드 코로나, 백신, 모더나, 얀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타이레놀, QR코드, 재난지원금, 페스트, 메르스, 사스, 손 소독제, 마스크, KF94, 마스크 대란 등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다음으로 일과 관련된 단어는 줌(zoom), 화상회의, 대면/비대면, 재택근무, 청년창업, 자영업, 회식, 모임 등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단어로는 홈트, 워라벨, 배달음식, 밀키트, 키오스크, 여행, 유튜브, OTT,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미스터트롯, 부동산, 집값, 주식, 비트코인, 출산과 육아, 결혼식, 장례식, 요양병원/요양원, 루틴(routine), 1인 가구 등이 자주 등장했다.

위 단어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구술자들의 면담에서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나타났다. 팬데믹 상황이 개인의 삶에도 얼마나 절대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두려움보다는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배달음식과 OTT 등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집안에서의 일상이 길어지면서 가족과 관계에 대한 관심 또는 고민이 커지는 현상은 지역을 막론하고 빈번히 등장하는 이야기 소재였다. 대전의 노영미 생활사 기록가가 인터뷰한 차소영 구술자는 지역의 시설 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재택근무를 하며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다. 한때 우울증을 겪기도 했으나, 3살과 4살의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 공원 등 지역에서의 문화생활을 발굴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삶을 활력을 찾아나갔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더욱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사례집2, 2021, 42). 이 외에도 가족, 친지, 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접촉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은 인터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삶을 말하다’ 부분이다.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말을 통해 지역의 현안 문제, 지역 정체성의 고민, 지리환경 요소 등 다양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들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의 경우 조선업, 선박, 외항 선원, 일본/일본체류, 신발공장, 도시개발, 영도, 온천천,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영도다리, 독립서점, 가덕도 신공항, 사투리, 핵발전소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현안 문제와 함께, 지역정체성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대부분 지명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대도시의 특성상 정체성이 선이 굵고 외부로 도드라지는 가시적인 키워드로 구성되고 있다.

광주는 5.18, 계엄군, 김대중 대통령, 빨치산, 송정역, 풍암동, 양림동, 전라도 음식, 양질의 일자리 등과 같이 여전히 지역 발전과 정치적인 문제들

이 지역의 화두임을 알게 해주는 명확한 단어가 등장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역사적 숙제, 지역의 아픔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대전은 경부선, 대전역, 과학의 도시, 엑스포, 은행동, 둔산동 등의 단어를 통해 교통 및 과학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심당, 노잼도시 등 신종 유행어와 도시재생, 청년정책, 1인 가구 등의 지역 현안을 담고 있는 단어가 빈번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군포에서는 위성도시, 산본 신도시, 베드타운, 교통, 지하철, 이주/이주민, 책의 도시, 그림책, 수리산, 재개발 등의 단어가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서울 주위의 소규모 신도시라는 특징상 풍부한 자기 키워드를 생산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다만, 군포는 참여한 생활사 기록가의 인원 대비 결과물의 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군포는 스스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남북관계의 온도를 느끼는 지역이다. 오대쌀, 한탄강, 두루미 등의 단어와 함께 접경지대, 뼈라, 대북방송, 군인, 군부대, 군인가족, GOP, DMZ, 수복지구, 6.25전쟁, 38선, 피난민, 김일성대학, 중공군, 소련어 등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타 지역에서는 거의 잊혀져가는 단어들에 주를 이룬다. 남북의 긴장과 대립이 현재에도 일상적으로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한 점은 면담에서 이러한 말들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질문에서 해당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어도 구술자들의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항구도시로서 부산, 교통중심지로서 대전,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갖고 있는 광주, 위성도시로서 군포, 접경도시로서 철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 지역주민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느낌과는 전

혀 다른 지역주민의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셋째, ‘일상을 말하다’ 부분이다.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은 구술자들의 내면이 드러난 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구술자들이 강조해서 언급하거나 면담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가족, 백신, 여성, 집, 모임, IMF, 재난지원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족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양상이 새롭게 생기면서 고민도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사는 가족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따로 사는 가족은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그로 인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한 갈등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재발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반응은 세 가지로 표출되었다. 첫째, 백신을 맞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맞았다는 불신, 불안, 두려움의 표현이고, 둘째,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맞았다는 것이고, 셋째, 백신부작용으로 극단적 상황에 놓이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성적, 감성적 딜레마를 스스로 감내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라는 키워드의 근본 문제는 코로나-19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었고, 주로 일과 육아에서의 고충, 경력단절로 인한 고충이 배가되는 점 등이 표출되고 있었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집은 일하고, 교육하고, 식사하고 쉬기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 되었다. 모임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

직장 내 회식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고, 명절에 고향 방문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방문하거나 방문을 조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증유의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많은 시민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해 냈다. 이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 공장 폐업 등의 그 시절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올렸다.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구술자들이 그 시기와 비교해 가면 코로나-19상황에서 교훈을 찾으려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고자 하였다.

재난지원금이 단순한 지원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계가 곤란해진 것을 의미한다. 재난지원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측 가능한 경제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였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한 사람의 구술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전체 내용을 파악했을 때 도출할 수 있다. 즉, 개별 구술기록이 물론 의미 있지만, 시기, 지역 등의 공통분모를 가진 구술기록이 서로 만나면 그 상승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구술기록 서비스는 개별 구술자의 발언에 주목하고 천착해 온 경향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을 꼼꼼하게 기록화하여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했다. 연관 검색어, 시소러스, 색인어 등을 마련하여 검색의 확장성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개별구술자의 기록을 충실하게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말을 문자화하고, 문자를 인식해서 검색조건은 물론이고 빅데이터화 하여 통계, 분석 및 미래를 예측하는 데까지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살고 있다. 개별 구술자의 발언내용을 각각 분리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구술내용이 유기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일반적인 기록서비스에서도 고려할 수 있지만, 구술기록의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아카이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타인의 삶의 흔적으로서 기록을 통해 직,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적지 않은 예산으로 확보한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구술기록을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정적인 방식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체 등의 특정 그룹에게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한 교육, 집담회, 감상문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술기록의 생산, 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국가기관에서 주민들의 삶을 구술채록 하는 일이 일반화된 가운데 연구자들에 의한 구술채록이 아니라 주민이 주민을 인터뷰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위에서 서술하였다.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소박하게 드러나는 외연에 비해 숨겨진 내면의 무게감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성과적 측면과 한계적 측면을 바탕으로 향후 구술사업이 더욱 다양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 기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는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에서 생산한 결과물들과 유사한 국민들의 ‘생활사 기록’을 다루는 기관이 다수 있다.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불필요한 중복업무나 소모적인 업무를 지양하고 및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각 기관에서 어떠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용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기관 간 협력은 기관의 업무효율에도 기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손쉽게 기록을 검색,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기록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구술기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서론에서 제시한 기관 외에도 많은 기관에서 구술채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으로 구술채록 기관 간 간담회가 있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하다. 향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축적된 기록과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하건데 구술기관 간 소장 구술기록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바란다. 산출물 정리분류 방식, 포맷 등에 있어서 상이할 것이다. 강제적으로 표준화할 필요도 없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국내 구술기록을 최대한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구술채록 기관은 물론이고 디지털아카이빙 시스템 측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산업계도 참여하고, 한국구술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자들도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

둘째, 기관별 구술기록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카이브(Archives)는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또한,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곳(장소, 기관, 기구)도 아카이브(Archives)라고 한다. 기록물로서 아카이브는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으로 구성되며 이를 보통 기록의 3요소라고 한다. 각 구술 사업에서 단순히 인터뷰한 음성파일이나 영상파일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서, 녹취문, 상세목록, 면담일지 등 다양한 부대기록을 생산하는 것도 구술기록 내용, 구조, 맥락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 아카이빙은 기록을 관리한다는 의미로서 기록의 획득, 정리, 분류, 기술, 평가, 활용, 폐기 등의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생활사아카이빙’ 사업처럼 아카이빙을 하고자 한다면, 구술기록의 생산단계, 관리단계, 활용단계를 체계화하고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기록물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실상부한 구술아카이브가 각 기관마다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구술기록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 즉 아카이빙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기록은 활용될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휘하게 된다. 구술기록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취문, 구술 음성파일 및 영상파일을 원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관심 있는 부분의 내용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구술기록을 재가공하여 2차, 3차 콘텐츠를 생산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구술기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적합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술기록 소장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한 기록의 내용, 기록을 활용한 과정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제공되는 서비스 방식과 기록내용에 대한 소감 공모, 구술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공모 등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양방향 서비스 구조를 갖추는 것도 구술기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스토리코어(Storycorps)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03년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뉴욕시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구술인터뷰를 시작한 이래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요즘 64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들의 구술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물은 구술자와 미국의회도서관도 공유한다. 해를 거듭하면서 구술채록 방법도 진화하여 마련된 부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술인터뷰 스튜디오를 탑재한 차량을 마련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홍보와 함께 인터뷰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인터뷰 역량과 구술 기록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스토리코어의 구술 채록과정, 구술 내용 및 구술 기록은 책자, 단편 애니

메이션으로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으며, 팟캐스트를 통해 방송도 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보통사람들의 이야기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 스토리코어의 도전은 단순히 양적인 성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즉,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알려가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다만, 서비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내용 압축과 각색 등으로 구술성 및 구술기록의 진본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가치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이유는 필요한 때에 원활하게 활용하여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구술채록 활동의 결과물인 구술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산과정부터 완결성 높게 생산하고, 생산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온 국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기록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간의 소통의 매개가 될 것이다. 서로의 이해 폭을 넓혀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여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장차 구술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기록이 그 가치를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종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대응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국사편찬위원회 (2009). 구술자료 만들기: 수집, 정리, 활용.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귀옥 (2014). 구술사연구: 방법과 실천.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택호 (2024). 구술 기록의 공공성. 기록학연구, (79), 443-469.
- 문화체육관광부,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2021). 2021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사례집 1, 2.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21). 2021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완료보고서.(비공개)
-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윤택림 (202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채록 매뉴얼. 한국구술사학회.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서울: 선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2019). 구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연구 결과물 유형, 자료화, 이관 표준화 지침.